

양돈협회 캠페인

가축분뇨 자원화!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 순창지부 임원들. (사진 왼쪽부터) 한재덕 감사, 신명옥 감사, 이윤택 지부장, 김종일 액비유통센터 부장, 박성진 총무, 이도영 감사

유용미생물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앞장서는

전북 순창지부

취재 - 오유환

순창은 조선왕조 5백년에 진상한 그 유명한 '순창고추장'으로 대표되는 고장이자, 장아찌, 김치 등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전통음식과 농산물로 유명한 고장이다. 특히 연평균 13.2℃, 습도 72%, 안개 낀 날 77일 등 발효 미생물 성장에 적합한 자연조

건을 갖추어 조선 태조 때부터 장류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친 천혜의 자연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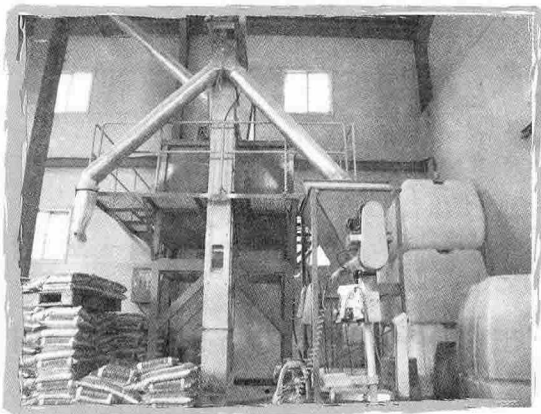
순창군에서는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M(유용미생물군)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확보해 그 성

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이 사업의 중추에 바로 양돈협회 순창지부가 있다.

순창지부(지부장 이운택)는 현재 순창지역의 15개 농가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약 2만여두의 돼지를 순창군 각 지역에서 고르게 기르고 있다. 순창지부는 현재 이운택 지부장을 중심으로 손주영 부지부장, 박성진 총무, 한재덕, 이도영 감사 등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명옥 간사와 함께 액비유통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일 팀장, EM 생균제 공장을 담당하는 오봉수 부장 등 직원들이 순창지부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유용미생물 EM

EM이란 1982년 일본 류카대학의 히카 류카오 교수에 의해 개발된 액상의 배양액으로 효모균, 유산균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용미생물 80여종을 조합한 것으로 항산화물질을 생성하며, 가축의 사료에 혼합하여 먹이면 축사의 악취제거, 면역력 증강, 육질개선의 효과가 있고, 농작물에 활용할



▲ EM 활성액과 생균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양돈산업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FTA를 두려워 하지 않는 순창지부만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우 토양개량, 연작장에 경감, 병해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순창지부는 EM 사업이 군내 양돈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순창 EM포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순창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EM 생균제 사업 추진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돈협회가 운영하는 EM 미생물 공장

EM 생균제 사업은 '02년부터 시작되어 순창지역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농가의 호응이 높아져 지난 '05년부터는 순창지부가 부지를 마련하고 군에서 보조비를 지원받아 EM생균제 공장을 건설하고 원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순창지부는 오봉수 부장을 비롯한 전담직원을 편성하여 EM 생균제 공장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순창지역 내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경종, 원예, 임산물 축산 및 어폐류 등 2,000여 농가에서 연간 500톤 규모(2만5천통/20l)의 EM 활성액을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EM 기술을 활용한 생균제를 자체생산하여 축산농가에는 5kg 한포대 9천원씩에 EM 생균제를 판매 공급하고 있다.

건강한 돼지와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EM제 적극 활용

순창지부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관리와 자연치유력이 강한 돼지를 키우기 위해 소모성질



환과 분노문제에 EM을 적극 활용중이다. EM 활성액은 축사의 청소나 소독분무에 이용된다. 사료에는 EM 생균제를 1%정도 섞어 주고, 음수에도 1,000배 정도 EM활성액을 희석 혼합하여 급이한다.

농장 내에 유용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며, 돼지의 생장이 좋아지고 건강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의 배설물은 냄새도 적고, 발효하기 쉽기 때문에 양질의 퇴비가 된다.

한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EM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700톤 규모의 EM 활성액 제조시설을 확장해 경종 및 축수산 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EM을 이용해 순창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고품질 농축산물로 인정받아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창지부는 앞으로 EM 생균제 공장사업을 기반으로 순창지역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의 고령 농가를 고려한 일괄배송으로 농가편의도 개선해 더욱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EM을 활용한 가축분 유기비료를 통해 미래형 유기농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장기계획을 마련중

이다.

순창지부는 EM 활성액과 EM 생균제를 이용해 개발한 EM 포크를 개발, 브랜드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역적 특성이용한 연중살포로 자연순환 농업에 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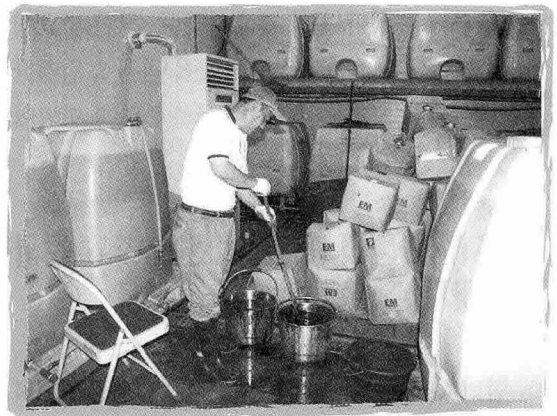
현재 순창지역의 양돈분뇨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의 1/3은 정화처리를 통해 공공처리장에서 해결하고, 2/3는 액비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순창지역 액비 자원화의 핵심은 순창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이다. 현재 순창지부 소속 농가 18호가 모두 액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순창 액비유통센터는 경종농가에 406ha의 농경지, 31,689톤의 액비를 시용하였다.

순창지부의 액비살포의 특징은 밤나무 과수농가 등 임야와 산지에 액비를 적극 살포하여 액비연중살포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보통 모내기가 시작된 5~9월까지의 기간에는 액비 살포가 중



▲ 순창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EM 생균제공장. (사진 왼쪽부터) 오봉수 EM공장 부장, 이윤택 지부장, 신명옥 간사, 오봉만, 이대기, 양백승 EM공장 직원



▲ EM 활성액을 배양하기 위한 공정중인 오봉수 EM 생균제 공장 부장



▲ 순창은 지역특성상 산지가 많아 입산물이 풍부하다. 순창지부는 초기에는 벼농사 중심의 수도작 농가에 액비를 살포했지만 최근에는 산지 살포를 늘리고 있다. 김종일 부장이 밤나무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

단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원예농가에 관수용 액비를 공급하는 한편 임야와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인근 과수농가에 액비를 공급하는 등 액비살포처의 다양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특히 밤나무 과수농가에만 총 294ha, 22,289ton의 액비를 공급하는 성과를 통해 연중 살포의 길을 마련해 친환경순환농업의 기틀을 다졌다.

액비유통센터 김종일 팀장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화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종농가와 지역주민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직접 발효액비의 냄새, 색도, 산도의 변화 등을 꼼꼼히 점검한 뒤 액비를 살포하는 등 액비 품질관리에 여념이 없었다.

높은 A·B 등급 출현율로 전북 최고, 전국 1등 돼지 생산 매진

한편 순창지부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과 EM생균제 공장사업 외에도 단일 종돈장을 통해 후보돈을 도입함으로써 종돈통일을 이뤄 생산성 향

상에 주력하는 한편, 약품, 기자재 역시 공동구매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후보돈의 단일화를 통해 축산물 등급판정 규격돈 생산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아 육가공업체에서는 인근보다 전국 평균 0.5~1%가량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은 이윤택 지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단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한 결과이다.

순창지부는 지난해 전국 15개 시·군 중에서 A,B등급 출현율이 78.1%로 전북도 1위의 등급성적을 기록했다.

그 중 순창지부 상위 농가의 출하성적을 보면, A,B등급 출현율이 약 90% 이상으로 순창군 평균 78.1%보다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순창지부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순창지부의 경쟁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윤택 지부장은 순창지부의 번식성적의 경우 평균 총산자수가 약 12두, 이유두수 10.2두, PSY 22두로 분만율을 향상시킨다면 더욱 좋은 성적으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돈을 이해하는 순창군청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

순창지부 경쟁력은 순창지부, 순창군청(군수 강인형), 농촌지도소, 경종농 작목반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협력구조에서 그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순창군청 산업경제과(과장 오수환)와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창군청내 영농후계자, 친환경 생산자들에게 액비살포 기간과 액비유통센터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전파하는 액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M생균제사업 역시 순창군청 공무원들의 폭넓은 지원으로 순창지역 경종, 축산농가에 성공



'06년 전북 시군별 등급성적 및 순창지부 성적비교

도	농가	A출현율	B출현율	C출현율	D출현율	E출현율	A+B출현율	농가수
전북	전체평균	39.4	29.6	15.1	12.2	3.7	69	774
	순창군평균	46.7	31.4	13.5	8	0.4	78.1	25
순창지부 농가	상위 10%농	64	30.7	5.3			94.7	
	상위 30%농	55.6	33.8	9.3	1.3		89.4	



▲ 순창 이윤택 지부장은 돼지분뇨가 경종농가에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창지부의 우수한 사양기술과 친환경농업의 노하우를 접목해 순창 EM포크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으로 보급 정착되었다. 이윤택 순창지부장은 순창지부의 양대 사업의 축인 EM사업과 액비유통센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양돈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될 것

이윤택 지부장은 FTA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양돈농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순창지역의 높은 사양기술을 바탕으로 한 순창지역의 양돈 브랜드를 전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축산물들과 경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윤택 지부장은 단순히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분뇨가 경종농가에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순창지부의 우수한 사양기술과 친환경농업의 노하우를 접목해 순창 EM포크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한편 가축분뇨를 이용한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해 순창을 유기농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초석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순창지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기 위해 순창군청과 연계해 노력하고 있다. 이윤택 지부장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선정된다면 우수한 퇴액비 보급을 통한 순창 유기농 자연순환농업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순창지부 자연순환농업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양동**